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장 영 숙*

Jang, Young-sook

강 경 석**

Kang, Kyung-seok

김 회 정***

Kim, Hee-j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were examined by 3 factors : adaptation to school lif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ability to control emotions. Subjects were 195 three-,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differed as a function of children's age but not gender.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others among the prosocial behavio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mother's autonomous parenting style. Unexpectedly,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did not vary according to fathers' parenting style.

Key Words :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어머니의 양육태도(mother's parenting style), 아버지의 양육태도(father's parenting style)

※ 접수 2003년 4월 30일, 채택 2003년 6월 23일

* 교신저자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전임강사, E-mail : yjang@mail.chosun.ac.kr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용화어린이집 교사

I. 서 론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관계를 이끌어 주며 인간 삶의 질을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왔다(Ladd & Profilet, 1996). 이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사회적 행동에는 외부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자발적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이 포함된다.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는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위로하기, 거부하기, 양보하기 등의 좁은 범주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 보이기, 배려하기 등의 좀 더 넓은 범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범주가 있다(최윤정 · 이기숙, 1999).

이처럼 인간발달에 있어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다루는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발달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Piaget와 Inhelder(1956)가 전조작기의 유아들은 이타적 행동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기대되는 조망 수용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은 6, 7세가 될 때까지 유아들은 이타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성인이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일상의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도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adke-Yarrow, Zahn-Waxler, & Chapman, 1983).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친사회적 행동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발달하며 발달적 성취의 결과라는 것을 보고하였다(Bar-Tal, Raviv, & Goldberg, 1982; Dunn & Munn, 1986; Hoffman,

1984; Radke-Yarrow & Zahn-Waxler, 1984). Hoffman(1984)이나 Radke-Yarrow와 Zahn-Waxler(1984)는 타인지향의 행위들은 생후 2년째 그 빈도가 증가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Dunn과 Munn(1986)도 역시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연령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관된 증거가 부족하다.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조은진, 2003). 즉, 박경원(1986)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옥경 · 이순형(1996)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다. 한편, 서봉연(1984)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패턴이나 상황조건이 다르면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 Denham과 Zoller 그리고 Couchoud(1994)는 남아와 여아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서적 측면을 이미 학습해 왔으므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친사회적 반응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남아는 사회에서 남성상으로 간주되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여아는 사회에서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조은진, 2003 재인용). Bardwick과 Douvan(1971)은 여아와 남아에 대한 양육태도 및 사회적 기대의 차이가 친사회적 행동 유형에서의 성별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옥경 · 이순형, 1996 재인용). 예를 들어, 여아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돕기

와 같은 특성을 강조하고, 남아에게는 도구적 도움을 요하는 상황에서의 돕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러 가지 유형의 친사회적 행동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각 유형에 따른 성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전반적인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성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은진, 2003).

위와 같이 발달론적 입장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의 사회적 행동이 아주 어린 시기부터 형성된다고 볼 때, 유아의 사회적 행동 특히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정 환경을 들 수 있다. 유아에 있어 부모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의 대상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유아는 부모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조복희, 1999).

부모가 유아를 양육하는 방식은 타인을 대하는 유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 자신의 친사회적 경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부모의 양육 방식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라고 하였다(이원영, 1983; Baumrind, 1971; Maccoby, 1980; McGraw, 1987).

이원영(1983)은 어머니가 과보호적일 때 자녀는 퇴행적이며 의존성을 보이고, 거부적일 경우 퇴행성만 보이지만, 어머니가 수용적일 경우에는 높은 사회적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Baumrind(197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시켰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제한을 따르도록 하지만 신체적 처벌보다는 추론으로 위반에 대응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할 수 있다. 독재적인 부모는 많은 규칙을 강요하고 자유를 거의 주지 않는다. 그러나 허용적인 부모는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행동에 표준을 세우지도 않는다. 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하지 않고 유아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게 한다. 한편, Maccoby(1980)는 독재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그런 유아는 내성적이며 사회적인 주도성이 없고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특징들은 여아들보다 남아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아기부터 형성되어 사회화의 중요한 기제가 되는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가치관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부모와 유아 사이에는 따뜻한 애정 관계가 형성되고 부모는 유아의 의사를 존중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는 합리적 설명을 통하여 통제함으로써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조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 모델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크게 대별하여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부모의 특성 중의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동등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지만(정옥분 외, 1997; Mullis, Smith, & Vollmers, 1983), 아버지 변인이 유아의 친사회

적 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함께 포함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고찰하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2-1.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2-2.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단계 표집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에 소재한 Y어린이집, Y유치원, B어린이집, N 어린이집의 부모에게 부모용 질문지 270부를 배포하여 230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조사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한쪽 부모용 질문지만이 돌아온 경우를 제외한 220명에 대하여 그 자녀들의 친사회성 행동 검사를 하였다.

2단계 과정에서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와 교사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각 항목별로 차이가 2점 이상 되는 유아의 자료 25부를 제외하여 최종 연구 대상은 만 3, 4, 5세 유아 195명과 그들의 부모 195명이었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분포를 보면 3세가 48명, 4세가 79명, 5세가 68명이었다. 한편, 남아는 114명, 여아는 81명이었다.

2. 연구 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도구는 Schaefer와 Bell 그리고 Bayley(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이다. 이 도구는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사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모에게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원영(1983)이 Schaefer의 MBRI를 번안하여 만든 양육태도 검사지를 아버지와 어머니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MBRI는 총 28문항 154개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요인(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 의존성 조장태도, 통제적 태도, 긍정적 평가태도, 어머니의 의존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양

양육태도는 두 개의 축, 즉 애정-거부, 자율-통제로 대별되는 4개의 하위요인인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로만 제한하여, 각 요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10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40문항의 검사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단계의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에 따라 부모가 직접 자기 평가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Cronbach α 신뢰도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α 계수
			부 모
애정적 태도	1, 5, 9, 13, 17, 21, 25, 29, 33, 37	10	.9031 .9086
거부적 태도	2, 6, 10, 14, 18, 22, 26, 30, 34, 38	10	.8856 .8780
자율적 태도	3, 7, 11, 15, 19, 23, 27, 31, 35, 39	10	.8448 .8676
통제적 태도	4, 8, 12, 16, 20, 24, 28, 32, 36, 40	10	.8929 .8822
전 체		40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의 문항은 바람직한 양육태도일수록 5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의 문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일수록 5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 양육태도의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하위요인별 소점수는 각각 10~50점까지이며, 총점수는 40~2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이다. 그리고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구하여 평균값 이상이면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집단, 평균값 미만이면 부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측정 도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Skill Situations Measure'를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가 예비 검사를 거쳐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kill Situations Measure'의 40개 문항 중 개인정서 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의 3개 하위요인별로 범주화하여, 유아가 쉽게 이해하고 유아의 반응이 가능한 5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사회적 행동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McGinnis와 Goldstein(1990)이 분류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개인정서 조절 능력이란 만족스런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를 사회나 문화의 기준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과정 중에 갈등도 경험하고 그럴 때 타인과의 의견조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이란 집단생활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예절을 지키며 사회적인 규칙 안에서 남과 더불어 집단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 측정 도구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유아의 문항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문항별로 그림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면접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유아의 반응을 교사가 기록하고 검사가 끝난 후 내용을 분석하여 채점을 하였다. 채점방법은 친사회적 반응에만 1점을 주고, 공격적 반응과 무관련 반응, 그리고 무반응에는 0점을 주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친사회적 행동 점수인데 하위요인별 소점수는 각각 0~5점까

〈표 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측정 도구의 요인 및 구성 내용

요 인	구 성 내 용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구로부터 소외당할 때 무조건 화가 날 때 친구가 놀릴 때 친구가 공평하지 못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한 후 벌을 받을 때
대인관계 형성능력	친구들 놀이에 새로 참여하기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친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친구와 놀이감을 나누어 가지고 놀기 친구 도와주기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	생각이나 느낌을 용기 있게 말하기 양해를 구하기 지시에 따르기 힘들어도 열심히 하기 상황에 알맞게 부탁하기

지며, 총점수는 0~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 수록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

3. 연구 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이 아닌 인천광역시 N어린이집 원아 20명과 부모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유아가 대답한 것은 친사회적 행동인데 비해 교사가 평가하는 유아의 행동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실제의 행동은 친사회적이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 및 사회적 기술을 지도 받은 내용을 유아가 지식으

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용 검사 도구 내용과 같은 형태의 교사용 검사 도구를 만들어 주어진 상황에서 유아의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유아의 반응과 근접된 것만을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2) 본 연구

예비연구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부모용 검사 도구를 인천광역시의 Y어린이집, Y유치원, B 어린이집, N어린이집 원아들의 부모들에게 배포·수집하였다. 총 270부를 배포하였으나 회수된 질문지는 230부였고, 누락되거나 한쪽 부모용 질문지만 수집된 것을 제외한 220명의 회수된 부모의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검사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와 교사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각 항목별로 차이가 2점 이상 나는 유아의 자료 25부를 제외한 195부의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검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의 차이 검증은 F-검증을 통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하였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è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자료 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하위요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하위요인을 합한 전체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연령별 차이도 분석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각 하위요인 및 전체 친사회적 행동이 유아의 연령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3세(N=48)		4세(N=49)		5세(N=68)		F
	M	SD	M	SD	M	SD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	2.40	1.14	3.20	1.11	4.15	1.00	22.301***
대인관계형성 능력	3.33	1.24	3.87	1.03	4.60	.85	41.310***
개인 정서 조절 능력	2.69	1.03	3.46	1.05	4.37	.90	55.529***
전체 친사회적 행동	8.42	2.41	10.53	2.44	13.12	2.41	37.827***

***p<.001

<표 3>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은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1.310, p<.001).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22.301, p<.001).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5.529, p<.001).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전체 친사회적 행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827, p<.001).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특성에 따른 유아의 하위요인별 친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Scheffé 사후 검증을 해 본 결과,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과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에서는 유아의 모든 연령의 집단 간에서 p<.001 수준에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에서는 유아의 연령이 3세인 집단과 4세인 집단 간에는 p<.05 수준에서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세인 집단과 5세인 집단 간, 4세인 집단과 5세인 집단 간에는 p<.001 수준에서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하여도, 유아의 모든 연령의 집단 간에서 p<.001 수준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하위요인별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유아교

육기관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남(N=114)		여(N=81)		t
	M	SD	M	SD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	3.24	1.30	3.47	1.23	-1.260
대인관계형성 능력	3.90	1.18	4.12	1.07	-1.333
개인 정서 조절 능력	3.51	1.22	3.69	1.13	-1.063
전체 친사회적 행동	10.65	3.10	11.28	2.83	-1.459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여아일 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전체 친사회적 행동에서도 여아일 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1)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표 5>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	양육태도	N	M	SD	t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	애정적	99	3.10	1.37	-.124
	비애정적	96	3.13	1.34	
	비거부적	99	2.94	1.36	-1.833
	거부적	96	3.29	1.32	
	자율적	102	3.06	.40	-.584
	비자율적	93	3.17	1.30	
대인관계 형성능력	비통제적	110	3.03	1.40	-1.007
	통제적	85	3.22	1.29	
	애정적	99	4.01	1.16	.407
	비애정적	96	3.94	1.32	
	비거부적	99	3.99	1.21	.177
	거부적	96	3.96	1.28	
자율적	102	3.99	1.27	.186	
비자율적	93	3.96	1.22		
개인정서 조절능력	비통제적	110	3.93	1.25	-.602
	통제적	85	4.04	1.24	
	애정적	99	3.36	1.27	-.179
	비애정적	96	3.40	1.24	
	비거부적	99	3.38	1.23	.049
	거부적	96	3.38	1.29	
자율적	102	3.48	1.21	1.176	
비자율적	93	3.27	1.30		
전체 친사회적 행동	비통제적	110	3.35	1.16	-430
	통제적	85	3.42	1.37	
	애정적	99	10.47	3.04	.036
	비애정적	96	10.46	3.34	
	비거부적	99	10.31	3.02	-.683
	거부적	96	10.63	3.35	
자율적	102	10.53	3.24	.288	
비자율적	93	10.40	3.13		
비통제적	110	10.30	3.09	-.831	
통제적	85	10.68	3.30		

개인정서 조절능력 및 전체 친사회적 행동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로 살펴보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비애정적일 때가 애정적일 때보다, 거부적일 때가 비거부적일 때보다, 비자율적일 때가 자율적일 때보다, 통제적일 때가 비통제적일 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적일 때가 비애정적일 때보다, 비거부적일 때가 거부적일 때보다, 자율적일 때가 비자율적일 때보다, 통제적일 때가 비통제적일 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비애정적일 때가 애정적일 때보다, 자율적일 때가 비자율적일 때보다, 통제적일 때가 비통제적일 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전체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 태도에서는 애정적일 때가 비애정적일 때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거부적일 때가 비거부적일 때보다, 자율적일 때가 비자율적일 때보다, 통제적일 때가 비통제적일 때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표 6>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	양육태도	N	M	SD	t
유아교육기관적응능력	애정적	99	3.18	1.35	.912
	비애정적	96	3.00	1.34	
	비거부적	99	3.18	1.28	.678
	거부적	96	3.05	1.33	
	자율적	102	3.27	1.46	1.592
	비자율적	93	2.96	1.22	
대인관계형성능력	비통제적	110	3.02	1.42	-.833
	통제적	85	3.19	1.29	
	애정적	99	3.98	1.23	.131
	비애정적	96	3.96	1.27	
	비거부적	99	4.09	1.21	1.203
	거부적	96	3.87	1.27	
자율적	102	4.22	1.08	2.881**	
비자율적	93	3.72	1.34		
개인정서조절능력	비통제적	110	3.95	1.28	-.205
	통제적	85	3.99	1.22	
	애정적	99	3.32	1.27	-.812
	비애정적	96	3.47	1.24	
	비거부적	99	3.54	1.25	1.759
	거부적	96	3.23	1.25	
자율적	102	3.46	1.24	.890	
비자율적	93	3.30	1.28		
전체친사회적행동	비통제적	110	3.44	1.23	.571
	통제적	85	3.33	1.28	
	애정적	121	10.49	3.04	.117
	비애정적	74	10.43	3.34	
	비거부적	94	10.81	3.02	1.451
	거부적	101	10.15	3.35	
자율적	98	10.95	3.24	2.147*	
비자율적	97	9.98	3.13		
비통제적	87	10.41	3.09	-.208	
통제적	108	10.51	3.30		

*p<.05 **p<.01

애정적일 때가 비애정적일 때보다, 비거부적일 때가 거부적일 때보다, 자율적일 때가 비자율적일 때보다, 통제적일 때가 비통제적일 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적일 때가 비애정적일 때보다, 비거부적일 때가 거부적일 때보다, 통제적일 때가 비통제적일 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율적일 때가 비자율적일 때보다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변량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81, p<.01$).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 유아가 더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비애정적일 때가 애정적일 때보다, 비거부적일 때가 거부적일 때보다, 자율적일 때가 비자율적일 때보다, 비통제적일 때가 통제적일 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전체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 태도에서는 애정적일 때가 비애정적일 때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거부적일 때가 거부적일 때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가 비자율적일 때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47, p<.05$).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 유아가 더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 때가 비통제적일 때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위요인별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들(e.g. 권옥자, 1987; 서동미, 1996; 이옥경·이순형, 1996; Bar-Tal, Raviv, & Goldberg, 1982; Dunn & Munn, 1986; Hoffman, 1984; Radke-Yarrow & Zahn-Waxler, 1984)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이 발달되고 모방 학습의 기회 및 직접적인 지도 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하위요인별 친사회적 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유아의 전체 친사회적 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Mullis와 Smith,

Vollmers(1983)가 아버지의 이성적 지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바와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친사회적 행동측정이나 측정도구 개발 등에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전통적 부모 역할 중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엄하고 어머니의 태도는 자비로움이었는데, 부모의 이러한 역할이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의 원리가 되어왔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해 그 책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가정교육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조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옥분 외, 1997).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하위요인별 친사회적 행동을 검토한 결과 대인관계 형성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e.g. 권옥자, 1987; 박정선, 1987; 서동미, 1996; 이원영, 1983; Baumrind, 1971; Maccoby, 1980; McGraw, 198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억압받은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또래 및 성인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에 기초한 행동은 집단사회나 개인이 생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느낌과 행동은 ‘인간(human)’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이은화·김영옥, 2000). 본 연구는 어머니와 유아가 자율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형성했을 때 유아가 보다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이 생각하는 양육태도를 측정하였으나, 친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자녀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을 토대로 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만 조사하였는데, 부모 이외 즉, 조부모, 대리모 등 다양한 형태의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의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질문지에 의한 조사 방법은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여러 명의 관찰자가 관찰한 결과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질의-응답식의 검사로만 측정하여 실제 놀이 상황에서는 비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보이면 서도 검사상황에서는 친사회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문제 상황에서의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밝히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패턴이나 상황조건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성역할 고정 혹은 사회적 성역할 유형

등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옥자(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옥, 윤경선(1999). 친사회적 토의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307-324.
- 박경원(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선(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숙도 및 인기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동미(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봉연(1984). 친사회적 행동의 규정요인에 관한 고찰. *심리학의 연구문제*, 1, 155-176.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학술보고서*, 4, 180-195.
- 이옥경, 이순형(1996). 과제의 부담과 종류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7(1), 275-288.
- 이은화, 김영옥(2000).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 정옥분 외(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 역할 인식과 자녀 양육 행동. *아동학회지*, 18(1), 81-107.
- 조복희(1999). 유아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은진(200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비판적 문헌고찰과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7(4), 181-202.
- 최윤정, 이기숙(1999).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275-291.
- Bardwick, J. M. & Douvan, E.(1971). Ambivalence : The socialization of woman. In V. Gormick & B. K. Moran(Eds.), *Woman in sexist society*. New York : Basic Co.
- Bar-Tal, D., Raviv, A., & Goldberg, G.(1982). Helping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 An observ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53, 396-402.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1, 1-103.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unn, J., & Munn, P.(1986). Siblings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265-284.
- Hoffman, M. L.(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Eds.), *Emotions, cognitions, and behavior*. Cambridge,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Profilet, S. M.(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08-1024.
-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cGinnis, E., & Goldstein, A. P.(1990). *Skills streaming in early childhood : Teaching prosocial skills to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 Champaign, IL : Research Press.
- McGraw, K. O.(1987). *Developmental Psychology*. Florida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ullis, R. L., Smith, D. W., & Vollmers, K. Z.(1983). Prosocial behaviors in young children and parental guidance. *Child Study Journal*, 13, 13-21.
- Piaget, J., & Inhelder, B.(1956). *The child's conception of spac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Radke-Yarrow, M., & Zahn-Waxler, C.(1984). Roots, motives, and pattern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E. Staub, D. Bar-Tal, J. Karylowski, & J. Reykowski(Eds.),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rosocial behavior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ositive behavior*(pp.81-99). New York : Plenum.
- Radke-Yarrow, M., Zahn-Waxler, C., & Chapman, H.(1983). Prosocial dispositions and behavior.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New York : Wiley.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d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4-424.